

「문화와 평화」 교토 선언

센 겐시쓰 대중장의 발의에 의해, 2004 년부터 일본, 중국, 한국을 순회하며 개최해 온 「동아시아 차문화 심포지엄」 및 「패널 디스커션—동아시아문화와 평화—」가 오늘 여기 교토에서 제 10 회를 맞이했습니다.

그 동안 한중일 3 개국의 연구자, 문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, 차문화 연구의 학술적 교류와 동아시아 지역의 우호 관계 촉진, 또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.

‘화(和)는 천하의 마땅히 지켜야 할 도(達道)이다’, ‘화(和)로써 고귀하게 하다’ 다도는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문화의 하나이며, 문화는 평화와 행복의 초석인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.

지금까지의 성과에 입각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.

1. 우리는 동아시아 우호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다도 정신 및 차문화를 사회에 지속적으로 발신하겠습니다.
2. 우리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을 존중하고,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상호 이해에 꼭 있어야 하는 화(和)의 정신을 중시합니다.
3. 우리는 ‘차 한잔에서 피스플네스를(一碗からピースフルネスを)’를 목표로 세계인들의 문화 교류 촉진과 평화 공존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.

2015 년 10 월 31 일

교토시 일본

제 10 회 동아시아 차문화 심포지엄

제 10 회 패널 디스커션—동아시아 문화와 평화—